

전북 '광역노후준비협의체' 구성·첫 회의

도, 4대 분야 19개 기관 대상 협의체 구성... 협의체 주요역할·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방향 설명

전북도는 4대 분야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광역노후준비협의체는 2021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개선 서비스 등을 제공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개편사항 및 노후준비협의체의 주요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6월 22일부터 운영될 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추진사업 및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를 지정할 예정이며, 센터를 통해 도민에게 △노후준비에 대한 기본·전문·심층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무·건강관리 등 노후에 필요한 교육 과정 26개를 개설해 운영해 나가고, △다가가는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 아카데미 등 전북 지역민의 특화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이번 사업이 은퇴예정자 등 많은 도민들에게 활기차고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비브리오패혈증 조심하세요"

전북 서해안 지역서비브리오패혈증균 올해 첫 검출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도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올해 들어 첫 검출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팀에서는 도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유증예측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5월 16일 채취한 해수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일주일 정도 검출시기가 빨랐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매년 그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어패류 섭취 또는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되는 3급 법정감염병으로 패혈증으로 진행 시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특히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감염 시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평균 1~3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혈압저하, 구토, 설사 등 증상이 있고,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에 피부 병변이 나타난다.

피부 병변은 주로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 형태로 나타나며 이후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

김호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늘어나는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도민들이 사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만약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도, 유엔 식량농업기구 관계자 초청...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유지 세부 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농촌진흥청 등 전북 농생명 현장 방문

FAO와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유지·상호 발전계기 마련

전북도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력연락사무소(이하 FAO) 탕 쑹야오 사무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양 기관 간 발전 및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FAO 관계자 초청은 지난 5월 2일 FAO 최동위 사무총장 내한 당시 신원식 정무부지사와의 면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내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김제시, 완주군, 전북대학교 등의 협력을 통해 우리도의 우수한 농생명 인프라를 소개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계기가 됐다.

FAO 관계자는 FAO 당면과제인 농업생산의 위기 및 식량안보 해결을 위해,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준공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농업

교육, 스마트팜 임대서비스 및 정주 지원, 실증단지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대한민국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 살펴보고,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농업의 비전을 세워나가도록 설립된 교육·홍보 공간인 농업과학관을 방문했다.

전북대학교는 이귀재 교수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 농생명소재 사업 지원을 위한 창조적 개방형 기술이전사업 플랫폼 구축사업', 주호중, 이화교 교수 등이 진행하고 있는 농업분야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기후변화, 식량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협력을



제안했다.

완주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해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 6차 산업의 성공모델인 완주 로컬푸드 현황 및 성공요인에 대한 브리핑과 용진읍 로컬푸드 시설견학 및 직접 물건을 사는 현장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탕 쑹야오 한국협력사무소장은 "FAO에 대한 전북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을 통해 전북도의 농생명 인프라에 대해 더 자세히 이

해하고 알게 됐다"며 "향후 전북도와 상호 협력하는 긴밀한 관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는 국제사회의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 관계자 대상 연수프로그램, 국제세미나, 농업 관련 기술 공유 등 FAO와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다"며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상호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아태마스터스조직위, 손님맞이 준비 분주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가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이 대회는 2023년 5월 12~20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리며, 26개 종목에 10,000여 명이 참가한다.

이에 조직위는 경기장 환경조성 및 참가선수단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군 종목단체와 14개 시·군 43개 경기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장 개·보수 현황 △경기장 부대시설 확보 및 점검

△대회등록센터 및 종합안내소 장소 점검 △시·군별 문화행사 및 교통·숙박 △주차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대책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조직위는 경기장이 밀집된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와 경기장 노후에 따른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오 조직위 사무총장은 "경기장 현장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사항들을 보완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도, 생활 속 치안아이디어 발굴 통해 도민 밀착형 정책 수립

전북자치경찰위,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공모 추진... 생활안전·사회적약자 보호·교통안전 분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6월 21일까지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자치경찰 출범 2년차를 맞이해 전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치안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도민 밀착형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분야이다.

생활 속 치안문제 해결과 도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와 관련한 제도시설 개선 등 행정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는다.

공모는 전북도 자치경찰 정책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 정책 제안 게시판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제안 13건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을 포함해 총 4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신한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제안내용의 독창성, 지역특성 반영, 도민 생활 밀접도, 실현 가능성, 정책의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된 제안은 향후 실무부서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전북형 치안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전북 청년 드림멘토링 지원 참여자 모집

전북도는 청년들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제1기 전북 청년 드림멘토링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북 청년 드림멘토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기력증, 우울감 등 이른바 '코로나블루(Corona Blue)'를 경험한 도내 청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청년 자존감 및 활동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사업에 선정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았다.

도내에 거주하거나 취업, 학업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만18~39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5일부터 6월 3일(금)까지 선착순으로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1기수당 참여자는 4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방학, 여름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20~40명씩 약 8기에 걸쳐 총 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된 청년들은 약 1개월에 걸쳐 심리검사, 1대1 전문가 심층상담,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받게 된다.

프로그램 운영결과 고 위험군 또는 장기적인 상담 및 약물치료 등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참여자에게는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유호상 기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녕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돋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최하오니 많은 사랑과 홍보를 기원합니다.



대회본부장 김일욱



대회홍보위원장 이수정(가수)



대회제진위원장 손명엽

1.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3.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4.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5.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서광수출포장(주), (유)유복이엔지, 삼대농장계성건설(주),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 참가자격 : ① 전국의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타 대회 대상, 최우수상 하지 않은 자

전화 : 063-286-6676 · 287-6678, FAX: 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